# '나무와 뿌리' 처럼 주인공 함께 있어

☞ 19면에서 계속

▲질문자3: 마음공부를 하면서 스님을 가까이 뵈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절에 20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오랜 동안을 다녔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공부가 이런 것은 아닌데' 하고 방황하던 차에 선원에 다니는 직장 동료로부터 건네 받은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면서 바로 내가 찾아 헤매던 그 길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원에 다니기 전에는 항상 몸이 아파서 입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원에 다니면서부터는 놓고 맡기는 공부를 하다보니 되는 것도 법이고 또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기 시작하여 건강도 좋아지고 항상 회향하고 감사함을 알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

## 나 아닌게 하나도 없어

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인공 그 자리만 확실히 믿고 맡긴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주인공의 든든한 빽 때문에 어떠한 일도 지금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한 생 공부하여 세세생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부를 가르쳐 주신 보답으로 저희들은 이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 드린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의 일입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면서 천장과 바닥이 맞돌기 시작하고 속이 토할 것같이 이상하면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인공을 놓치면 안된다는 한 생각에 간절히 주인공을 부르면서 관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살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마음이 약간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주인공 그 자리에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고 보니 주인공 그 자리의 믿음은 더욱 굳고 그리고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혼자서 약 2시간 정도 몸부림치면서 주인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큰소리로 혼자 울부짖으면서 관을 했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도 모르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 내렸고 온 몸은 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를 지나면서 관을 하다 보니 서서히 여러 가지 고통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몸은 편해지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 2월에 외손녀가 돌이 막 지났는데 어느 날 늦은 밤에 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뇌파검사, MRI검사를 했지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아이는 퇴원을 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별 이상이 없다는 아이는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응급실 입원 퇴원을 한 달간 여러 차례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녀는 절대 주인공 자리를 놓치지 말자고 하면서 그때마다 정말 열심히 관을 하면서 선원을 날마다 찾아와서 주인공 그 자리를 믿고 맡겼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인공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기 시작한지 약 1달 정도 되었을 때, 늦은 밤에 딸한테서 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는 거의 마비상태이고 아무래도 아이가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그래, 우리가 지민이에 대한 착을 놓고 편안할 수 있도록 주인공 그 자리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공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자고, 설사 우리 지민이가 몸을 벗는다고 해도 절대 속지 말자고 다시 한 번 주인공 그 자리를 확신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선원으로 가서 그 자리에 관하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서서히 아이가 회복을 시작하여 4월부터는 많은 차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착을 놓으라는 스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건만 자식에 대한 착은 놓질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저희들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이번 아이의 아픔은 가족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딸에게는 주인공의 나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던 저에게도 여러 계단을 넘어 설 수 있는 공부였구요. 딸은 이제 주인공을 정말 확실히



그림 · 최주현

## 에너지 나오는 근본처는 오직 하나

## 꿈에 귀신이 덤벼들어도 나로 보라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이 데리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에 비하서 발육이 상당히 늦고 가끔 경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번 두 달 동안의 공부가 이제까지 했던 몇 십 년의 공부보다도 훨씬 많이 체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정진하여 은혜에 보답하겠

## 구정물 맑은물로 바꾸라

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법을 가르쳐 주신 스님께서 항상 법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지민이 몸 힘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법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누구한테 묻기 이전에, 다 알고 나서는 다 필요 없죠. 궁극에 들어가서는 자기 몸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군데밖에는 없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죽을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살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질문자4: 가엾는 은공을 입어 오늘을 다시 살고 있는 한 목숨이 주인공에 깊이 관해도 때때로 다가오는 삶에 대한 회의에 빠져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질문을 드리오니 하문을 바라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뜻으로 푼 반야심경에 끊임없는 생명들의 줄어듦도 늘어남도 본래 없다고 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 인구의 격감, 온갖 동물 희귀종 멸종 등은 무의 50% 세계로 환원하는 현상인가요?

▲스님: 그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그렇고, 짐승이 처음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벌레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인간까지 온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짐승이 됐으면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됐어도 짐승으로 될 수도 있고 자꾸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있는 고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지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냥, 토끼가 토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개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돼지가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소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가지로 태어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나고 권리도 주어지고 삶도 주어지고 생김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깐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마음 하나인데,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마음 아닌 마음을 진짜로 써야된다. 마음 아닌 마음을 항상 둘 아니게 써야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 이걸로 태어나고 저기 가서 저 걸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짐승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는 거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는 모두 둘로 보지말고 둘로 보지 않는 반면에 그냥 사랑 없는 사랑이 되죠, 자연적으로. 주인공 찾으려면 주인공 어디서 찾나 이러지 말고 자기 나무로 치면 뿌리라고 그러죠, 뿌리와 나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편리한데도 주인공이 어디 있나 찾거든요. 그러니깐 항상 나무에 뿌리 붙어 있듯 그렇게 있으니깐 걱정하실 게 없단 얘깁니다.

▲질문자4: 두 번째는 가끔씩 꿈속에서 귀신 아닌 똑같은 사람이 저를 붙잡으러 왔다거나 어떤 때는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 생각에 저승사자라고 생각되어 소리치다 깨어나서 관하는데 공부를 시키려는 자 불의 나툼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그런데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죠. 뭐든지 둘로 보지 말라고 했으니깐요. 뭐든지요. 그랬는데 악수를 한다거나 와서 가자고 그런다거나 하더라도 너와 나가 둘이 아닌데 뭘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둘 아니게 이미 벌써 규정하고 있는데 뭘 데리러 오고 뭘 악수하자고 그런다고, 하하하.

▲질문자4: 높고 깊은 은혜로 어두운 터널에서 한 걸음씩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던지, 꿈에 구정물이 나오더라도 맑은 물로 바꿔 써라 이런 말을 항상 내가 하죠. 그러고 또 무슨 귀신이 덤빈다 하더라도 귀신이 아니라 자기 공부 길을 주는 거니깐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구요.

▲질문자5: 지난 번 법회 때 의사선생님이 질문에 "애기 원소에 가서 얘기해." 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안에 넣고 관하는 것은 잘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모르겠기에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는 내 몸이 이렇게 있고 상대의 몸이 있는데 상대가 제 앞에 있을 때는 되거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는 게, 근데 상대가 없을 때 그 상대한테 들어 갈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스님께선 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마음은 허공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스님 뵙고 싶을 때 '스님!' 하면서 그렇게 한 자리 하면서 관하는 게 상대에게 직접 들어가는 것인가 아직까지 확실히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 마음은 오고 감이 자유

▲스님: 물 속으로 다니는 잠수함 있지? 잠수함이 폭탄을 쏘면 그 잠수함에서 폭탄 쏜 게 딴 잠수함으로다가 좇아가는 거죠, 그렇게 좇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내면은 천리밖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가 되죠, 천리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게 뭐냐하면은 저승에 있는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집안에 너무 가환이 많으면은 내 집안에 조상들을 모셔다가 관리인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지혜가 넉넉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가까워야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멀어도 천리 밖에 만리 밖에 있다 하더라 들고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사회자: 오늘 질문 인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스님: 끝이 납니까?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이 공부인데, 허허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24간 살아가면서 들들 볶고 나가다가도 퍼뜩 생각이 나면은 딱 제거가 되고 생각이 잘 들아가는데 그렇게만 돼도 어디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손들이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워낙 부모의 마음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들이 가라앉아서 잘 하면 자식들의 마음도 딱 가라앉아져요. 일어났던 마음도 가라앉고 다 착해지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잘 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2001년 5월 20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잎망울 틔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 전화약속 10분소요 역곡 1호선 하차→남부역쪽 1번 출구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동방불교대학
하계 범패 특강 안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에서
각 사암에서 제반 일용의식 등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하계 범패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 음
1. 과 목 : 일용의식 (사물다루는 법 · 도량석 · 쇳송 · 상단 및 각단 예불 · 각종 불공의식 등), 각배
2. 대 상 : 교임 및 일반인 · 동방인 (재학생 및 동문)
3. 기 간 : 6월 25일~8월 25일 (2개월)
4. 강의시간 : 매주 火 · 木, 오후 6:30~8:00
5. 담 당 : 본교 범패과 교수
6. 수업료 : 교임 및 일반인 ₩150,000, 동방인 ₩100,000
7. 문의처 : 동방대 교학처 ☎ 02)763-0229 · 8536
2001. 6. 7.
교 무 과

밀양 – 얼음골 신비의
참 다슬기
당신의 "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밀양얼음골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정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주는
건강보조 식품입니다
밀양얼음골 (시냇물농원)
상담문의 (자료신청)
☎ 055) 355-5626

국제전화 00753
이제부터 국제전화 거실 때는
00753 만 누르세요!
한국 → 미국 : 180원/분
미국 → 한국 : 220원/분
안전하고 편리한 후불제 국제전화!
전세계 280여개 지역 서비스중
미국 로밍 개통! -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시고 요금은 저렴하게 한국에서 후불로 내시면 됩니다

| | | | |
|---|---|---|---|
| 미 국 | 180원 | 유 럽 | 380원 |
| 캐 나 다 | 380원 | 러 시 아 | 690-770원 |
| 일 본 | 290원 | 호 주 | 420원 |
| 중 국 | 760원 | 뉴질랜드 | 420원 |

■ 가입비, 연회비, 기본료가 없습니다. 할인시간대 통화시 30% 할인
■ 이용문의 : 도시폰 고객센타
TEL : 00753 또는 (02) 511-6333
(주) 도화텔레콤 Dohwa Telecom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5-18 영빌딩
http://www.dosiphone.net//
E-mail : helpdesk@dositel.com